



1. 教会에 革新을
2. 社会에 變革을
3. 世界에 所望을

격동의 해 1970년에 맞은 주의 성탄

전영복 목사

이스라엘 민족은 국난에 처할 때 메시야가 나타나 시기를 기다리고 바랐던 모세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다. 나라와 민족의 힘이 더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드러설 때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이 나타나 시기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엘」이라 하였는데 능력이라는 뜻이다. 인간의 역사에 힘의 균형이 깨질 때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 세계가 공포와 불안에 빠지게 된다. 인간으로서 더할 수 없는 지경에서 바라는 것은 구세주의 출현이요, 힘에 능력이 지배와 권능의 공정한 심판을 내리시는 구세주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데에서 진지한 종교가 생겨난다. 1970년은 70년대의 첫해로서 격동과 불안의 해로서 맞이하고 일년을 지났다. 느껴 생각한바 이상의 어두운 해로 지났다. 파리평화회담은 점점 암흑이 짙어지며 동서양의 갈등이 날로 다각적으로 세계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남북의 이간은 더욱 깊어간다. 평화의 표징인 만박은 일본의 경제성장의 시위와 일본의 지배력과 군국주의화에 박차를 더하는 결과를 보이게 되었다. 해는 바뀐다. 하더라도 오히려 힘의 불균형과 친구가치관의 상극(相剋)으로 약한 민족은 절망과 무거운 눌림속에서 신음하게 된다. 어찌 희망을 두며 무엇에 기대하라. 이시대를 혁신한다는 젊은 세대는 돈과 권력으로 군사행동 그대로의 소동을 일시키고 있고 오늘의 정치는 동석간에 공포만을 가져오게 된다. 경제는 原子탄에 직결되어 있고 세상은 점차 군국주의정신에 기울어 간다. 교육은 인간을 혼란과 단절에 몰아간다. 이제야 인간의 소리 없는 부르짖음을 말없는 간절한 所願은 구세주의 출현이다.

성탄은 교회의 전문적행

사나 세상의 주창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와 인간의 가장 진지한 悲願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한갓 종교적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의 깊은 속에서 큰 혁신을 일키고 참인간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출현이요, 현실적으로 인간역사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세계와 역사의 주되시고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시려 하시는 동자에 우리 하나하나의 속깊은데에

탄생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실인 것이다. 제일대한기독교회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모든 종교적의식과행사를 넘어서 신도 하나하나가 주님앞에 막아서서 주를 뵈고 주님과 대화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인간과 교회와 세계의 크나큰 혁신이 이루어져 세계의 희망이 아침해가 돋듯이 떠오르게 된다. (전도총간사)

축 성 탄

KCC建設委員會 委員長 金昌業 副委員長吳允台 書記俞錫濬 會計姜仁道 委員 金京秋 李小龍 金德洙 太比秀 李仁夏 田永福 金恒媛 崔勝久 募金実行委員 委員長金德成 委員 金元治 金瓊燦 丁仁壽 洪永其 崔昌華 朴命俊 李昌雨 尹宗銀 崔京植 李宗憲 裴琪煥 安榮俊 黃在正 河仁德 金漢弼 金光洙 崔永模 閔重三 全奎長 金官玉 金晚俊 金在述 徐載焄 玉文錫 李東和 李永壽

성탄을 삼가히 축하하오며 제일대한기독교회총회각교회교우 여러분의 건강과 신앙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하합니다. 15년전부터 총회가 計畫한 KCC건설은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로서 大阪市生野區에 318평의 대지와 연 167평의 두건물을 구입하게 되어 9월8일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총액 1억만圓인데 계약금 2,500만圓은 지불하였고 12월20일에 4,000만圓 명년5월30일에 3,500만圓 지불하여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총회 모든 교회가 책임지고 3,600만圓을 모금하여야 하겠으니 교우 여러분이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우리총회로서 전무후무한 대사업인 KCC건설을 위하여

극력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의 표어 그대로 설기는 교회 화해의 중세상의 소금의 직책을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제일동포61만과 함께 살고 함께 죽자는 우리의 간절한 사회책임을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에 사는 소수자로서 사회복지 청소년지도 부녀활동 기본적인 문화활동 인생생활상담등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맡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세계가 격동과 불안에 쌓인 1970년을 거의 보내려는 성탄절에 세계의 주가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이시대에 살아나가야 하겠읍니다.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고 교회가 더욱 일신하여 매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성 목사

大阪교회취임

11월15일주일 오후 3시 大阪교회에서 판서지방회가 김덕성목사의 위임식을 거행하였다. 갈망하던 새일꾼을 맞이한 大阪교회교인들은 기쁨에 넘쳐서 오후 3시정각에 만당입주의 여지없이 모여드려 임시대회장 金元治목사의 사회하 엄숙하고

도 은총에 넘치는 가운데 순서를 따라 간곡한 기도와 지방회장정인수목사의 사식으로 교회위임의 서약을 행하였다. 일등은 새삼스러히 교회의 권위와 목사의 성직의 임무를 뜻깊이 느껴졌다. 전도부장전영복목사의 설교와 청년부장윤중은목사의 권장에 이어 이중현목사와 유석준장로의 축사로 짧은 시간에 하늘의 인증을 받는 위임식절차를 마쳤다. 이제 大阪교회가 아조 새려워져 권리주창과 지위다툼을 떠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목사의 사명의 귀함을 알고 존경하며 교인이 보배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인격의 완성과 선교의 활동으로 일치되어 가는 大阪교회의 모습을 감격하게 느꼈다. 위임식을 마친후 大阪교회가 베푼 환영파티에 전회중이 즐겨하여 성도의 지극한 교제를 이루었다.(田)

윤중은 목사

堺교회위임

지난10월25일 在日大韓基督教會関西地方會々長 丁仁壽牧師의 司式으로 堺教会에서는 尹宗銀牧師님을 担任牧師로 委任式이 盛大히 거행되었다. 판서지방 여러교회역사 및 성도들 그리고 내외 귀빈들을 모신중에 안영준목사의 「살아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힘 있는 설교와 여러동력자들의 권장축사들이 있었다. 堺教会로서는 수년간무목의 교회로 타교회가 알지못한 눈물겨운 일들이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금년여름에는 이성기장노님이 장입을 받으셨고 또 가을에는 위임목사님을 모시게 되어 이제 완전한

조직교회로 앞으로 크게 발전을 기하는 바이다. 尹宗銀牧師님은 1955년에 神戸神學院을 卒業한후 広島에서 개척전도를 시작하여 교회를 이룩하여 교회당까지 지진 했고 그후 西宮教会를 10余年牧會하여 교회당건축과 자립교회가 되도록 힘썼다하며 그간 関西學院大學에서 文學士와 神學修士學位까지 취득했는데 미국유학의 길이열려 12년간 섬기던 西宮教会를 사임하고 1969년에 米國뉴욕 유니온神學校大學院에서 新約聖書學을 專攻하여 神學碩士學位을 받고 금년6월에 귀일하여 堺教会의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았다고 한다. 앞으로 목회의 새로운 방법을 말하는 윤목사에게 크게 기대하는 바이다.

가족에 있어서는 사모님 정경량(정인수목사님의 장녀) 장남 성철(中2学年) 차남 성택(小6年生) 장녀牧子(小2年生) 다섯가족이다. 윤목사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되기 위하여는 교회는 항상앞을 내다보며 개방적이어야한다고 주장한다. (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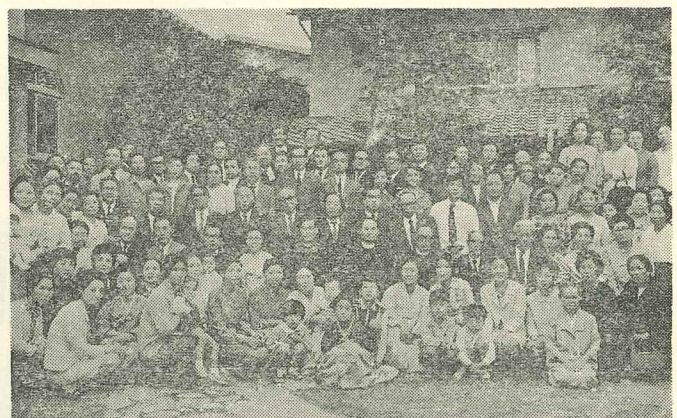
화 해 일본어판

한국가정문서선교회
일본지부 발행지

동포가정 방문할때 배포합시다. 신앙지도, 사회문제, 우리들 인권문제등을 다르고 있으며 각처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부20원 교회별로 신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東大阪市南莊町9-18
枚岡教会内



(윤 목 사 위 임 식)

여전도회 1월 월례 회를 위하여

영혼의 양식

그해에 가나안땅의 열매를 먹다

여호수아 5:10~12 • 요한 6:32~35

여호수아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복지로 드러가 사실을 읽을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대로 그들은 젃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그곳 소산을 먹었습니다. 유랑의 우울하던 여행이 끝났습니다. 다시 천막을 옮길 염려도 없고 불배암도 잔인한 아말렉사람들도 없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곳의 산물을 먹으며 강건하게 용기를 회복 하였읍니다.

오늘의 은혜시대 바로 이해에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야말로 복된 생활이요 그에게 양육받는 삶은 비할 수 없는 건전한 생활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로라도 먹지못하면 건강을 해치듯 영혼도 건강하게 보존하려면 끊임없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성경을 읽는 중에 주님께 나의 전부를 내어마끼는 신앙과 집사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씨로써 그와 동행하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빵공장을 참관(參觀)하러 간 사람이 그빵이 어떻게 되어나 오는 과정 기계설비 등에만 열심으로 보고 설

명을 듣고 도라와서 그빵은 한조각도 먹어보지못하여서 맛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반성할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각기관의 활동사업 여전도회의 운영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주님의 떡에 접하여 그 맛을 체험하는 생활이 소홀해지기 쉬웁니다.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각각 우리자신들이 열심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부터의 영생의 양식을 먹고 잘 자라나기 위한 교회생활이요 성도의 교제가 되기 원하는 바입니다.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예배시간에 성경의 장절을 찾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영이 자라날수도 살수도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주위에 다 좋지못한 영향마저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교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마가 8:15)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일상생활이 좋게든지 나쁘게든지 자녀와 이웃에게 퍼지게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게 됩니다.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자라나고 있다는 일은 참으로 두려운 사실입니다. 번거로운 세상에서 바쁘고 고달프게 시달리는 중에도 성경말씀의 단란구절 이라도 날마다

정성으로 읽고 뇌리에 깊이 새기면서 그 날의 일을 다하며 피로움과 즐거움을 주께 아뢰는 생활이 회구되는 바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는 그의 품성은 스스로 알게 모르게 이웃과 오고 오는 자녀손들에게 밝은 등불이 되고 소금의 직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해에 가나안의 소산을 먹었다. / 우리도 이해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건전하게 동성히 걸리워집시다.

× ×
주님이시여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해를 비롯하여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증거하는 저희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알림: 지난 11월 24일(화) 오전 11시부터 아베노 Y M C A 잔국룸에서 부녀국장 홍영기 목사님의 사회로 부녀국

여전도회 연석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아래의 몇가지를 결정 하였습니다.

- ① 가정생활 연구 위원회에서 새해의 활동으로 책자 환권을 발간 하기로 하고 原稿를 각각 맡아서 1971년 2월말까지 부녀국서기 한재수목사님께 보내기로 하다 (原稿맡은 이: 정인수, 홍영기, 김향운, 정경희, 김주일, 권인숙, 이영숙)
 - ② 봉사자 연수회를 1971년 2월 18일부터 2泊3日間 奈良, 桃山荘에서 열기로 하고 그 준비위원을 선정하다 (준비위원: 정인수, 김주일, 권인숙, 이영숙)
 - ③ 東大카리스탄의 난민들 구제에 여전도회원들의 각 교회들을 통하여 적극 협력할것
 - ④ 각 지방회와 연합회 부녀국 총회간에 연락을 보다 더 긴밀히 가지도록 할것
- 이상에 대하여 전국의 여전도회원들은 물론 교회여러분들의 聲援을 삼가 바랍니다. 총무 이영숙

명을 언제나 우리의 목표로 세워 총회가 지운책임의 짐을 하나하나 감당하려는 선교 10개년計劃은 제 2년에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하에 총회 전체의 협력의 크나큰 열매인줄 알고 감사하는 바입니다.

사업으로는 동경 NCC 별안에 총회사무실을 가지게 되어 세계교회와 어깨를 겨누게 되었고 우리총회로서 전무후무한 대사업인 生野지역센터 (KCC회관)을 건설하게 되어 1억 1천 円의 예산으로 건설도상에만 이르렀고 내년 3월부터는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 드러가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의 우리의 교회체질 그대로의 활동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교우 여러분께 심심의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삼가 祝願합니다. 다새해에 선교 10개년計劃의 활동과 사업을 위하여 더욱 열성을 다하여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축 성 탄 和 解 (日本語版)

宣教 10 周年 実行委員会
委員長 吳允台 総幹事 田永福
幹事 裴仁道 会計 金昌業
実行委員 李仁夏 朴命俊
主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제일대한국도교회총회가 역사적인 計劃으로서 활동하게된 선교 10개년計劃은 여러교우들의 총력을 다하신 협력으로서 제 2년된 이해도 예산한대로 자금을 얻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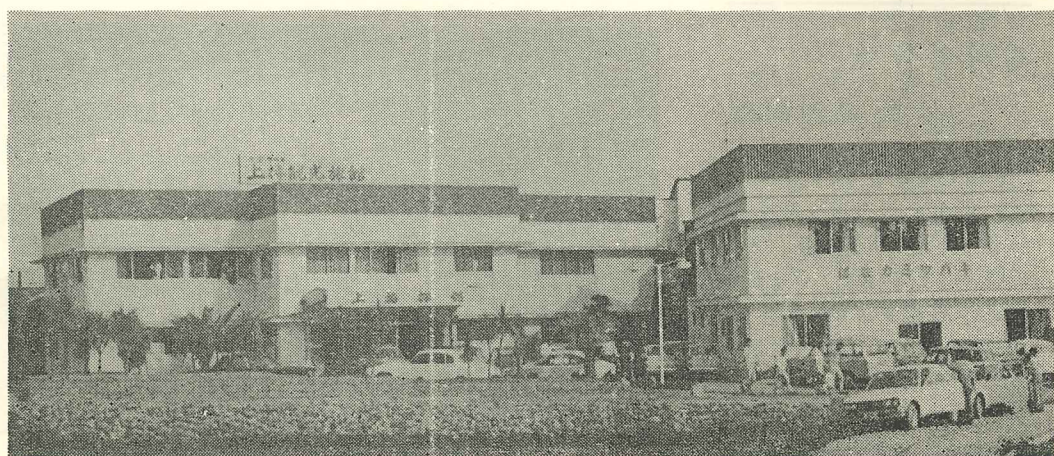
새로 개척한 개척전도는 북해도에 이성주목사가 計劃적이며 광범의 전도권전

도로서 북해도교회의 형성의 기초를 세우고 있으며 仙台는 맹렬히목사가 전적 책임을 지고 뿌리깊은 교회형성을 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桑名는 박명준목사가 전임주관자로서 취임하여 역사 있는 교회가 형성 되었고 岡山는 본국 감리교회와 유대하여 완전한 교회가 형성 되었습니다. 佐世保는 개척전도시작시부터 박창환강도사가 정주교역자로서 자리잡은 전도와 교회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동포 60만의 구

韓国家庭文書宣教会
日本支部 発行誌

同胞の家庭訪問に際し配布して下さい。信仰、社会、人權等の問題を取り扱い多方面から好評を得ています。
一部 20 円で申込んで下さい。

東大阪市南荘町 9-18
枚岡教会内



教会の集会などにご利用を

教会の皆様には一泊 2 食付、サービス料などすべて込みで、¥1500.- です。
「ヘルストロン」保健装置を無料でご使用できます。
また、このルームにはキリスト教書籍を設置。

在日大韓基督教会 指定旅館

上 椿

代表者 金 京 秋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椿
電話 富田 (073991) 445~6
大阪案内所 大阪市北区曾根崎町 2-21
電話 大阪 (06) 341-2162

激動の年に迎えた聖誕節

イスラエル民族は、国難に遭う時、ひたすらにメシヤの出現を願った。国の力、人の力の限界を知り、何うにもならない。終末的な思念に追い込まれた時、超人間的な神、全能の神、そして救いの神の来り給うことを切望した。そこから生れたのがイスラエルの神信仰であって、神をエールと言ったのは力の神を神としたからである。人間の歴史の中で力の均衡が破れたとき恐るべき悲劇が起る。そこから、生れた人間の悲願は救世主の出現であり、力の上に力の支配と力の審きを公正にし給う超人間的実在者の神が現実に出現し給うことをひたすらに待ち望むのである。そこから真実な宗教が起って来た。1970年は70年代の始まりとして不気味な恐怖と不安の中で一年を過した。動乱、激動の年として迎え、そして一年を過した。予期した以上に暗い年であった。パリ平和会議も一層暗さを増し、東西両陣営の確執は益々多角的に世界の隅々まで影響を与え、南北の溝を深めて行った。平和の象徴としてのエキスポが日本の経済力の示威とそれによる確定的な支配力と軍国主義化に拍車をかける様相をかもし出して来た。この年が暮れ、新しい年に肩代りしようとしている世界、分けても力の不均衡と新旧価値観の相剋に脅えている弱い側の民族には、希望にすり代えられた絶望のみが重苦しく蔽いかぶさって来ている。こうした時点に立って、何に希望を置き、何に期待を持つべきか、この時代への真実な改革を考え、叫んでいる若い世代に期待して確かであろうか、革新の先鋒者が金と権力を得た時の豹

変を、平和主義者の軍隊行動そのままのゲバ棒騒ぎにマザマザと見せつけられ、理論の転回と狂気じみた感情だけの叫びで足れりとする若い世代への失望は余りにも大きい。今の政治は東西共に恐怖のみをかり立てている。経済は直ちに核兵器に繋っている。マスコミは日と共に軍国主義へと移り変わりつつある、教育は只人間を混沌と断絶へと追いやって行くのみである。今にこそ、人心は、声なき叫びとして、言葉なき願いとして、救世主の到来のみ待ち望んでいるのである。クリスマスは教会の専門行事でなく、世人の酒乱の行事でなく、世界の、人間のギリギリの悲願である。特に1970年の待望はキリストの出現である。キリストの出現は、只宗教的な概念としての救世主でなく、人の人格の奥深いところに、大革命を起し、真の人間を創造し

給う神の、現実的、歴史的な出現である、キリストが生きて今も歴史の主であり給うことのみが、今日の世界の救いであり、我々の唯一の希望である。キリストが、一人一人の奥深いところに誕生し給うことが、世界の真の救いである。

在日大韓基督教会は聖誕節を迎え、一切の宗教的儀式と行事を越えて、キリストが教会の主となり給うことを、信徒一人一人の主となり、人間形成の創造主であり給うことを、新しく信じ自覚して各自が一人一人、キリストの聖前に聖誕節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生けるキリストとの出会いとして、主との対話としての聖誕節でなく、今日までの年中行事としてのクリスマスであれば百害あるのみである。(田永福 牧師)

〈福音〉世のための神の言

界教会牧師 尹 宗 銀

2. 神のシャーロームは、われわれに自由を約束している。今日、私たちが、「自由」あるいは「解放」という言葉をしばしばもちいているが、自由または解放の本質を正しく理解することは、きわめてむずかしいのである。なぜならば、私たちは、ナザレのイエスの外に真の自由人を見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ある。自由とは、いったい何んであるか。E・Kasemannの著書中、新約聖書における

自由を解釈した本で「イエスは自由を意味する」(Jesus Means Freedom)が自由の本質をもっともよく言い表わしている。神はナザレのイエスにおいて、私たちに自由を与えたのみならず、イエスが自由そのものである。自由は放縦ではない。自由は成熟(maturity)であり、束縛と正反対であり、責任をあらわす状態である。それゆえに、D・ボンヘッファーは、その著書「倫理」において「責任と

自由とは、互いに相呼応しあう概念である」とのべられている。神は、ナザレのイエスにおいて、私たちを自由にするのみならず、また私たちをして神と人間に対して責任を負うて生きる者としてたてられた。聖書は、人間を不自由にする処に束縛からの解放と人間をして奉仕のわざをするための自由との両側面を述べている。それについて使徒パウロは、「兄弟たちよ、あなたがたが召されたのは、実に、自由を得るためである。ただ、その自由を、肉の働く機会としないで、愛をもって互に仕えなさい」(ガラテヤ5:13)といわれている。私たちの周囲には、われわれの自由を剝奪しようとする力が横行している。これらの力は、聖書において「すべての支配、権威、権力、権勢」等として説明されている。キリストに合うバプテスマを受けたものは、だれでも自由(キリスト)を身に着たのである。聖書に「自由」或いは「自由にする」と翻訳されている原語は「エレウテリア、エレウテロウン」(Eleutheria, Eleutheroun)である。聖書はこの語法をもって、三側面からの自由についてのべている。第一に、罪から解放された者の自由である(ロマ6:8-23,

ヨハネ8:30-36)。第二に、律法から解放された者の自由である(ロマ7:3以下8:2,ガラテヤ2:5,4:21-31)。そして最後に、死より解放された者の自由である(ロマ6:21以下8:21)。これらの三側面から自由を総合して言うならば、罪において、律法を通して、死に至る現存在(Wasein)の自由であるといえよう。これは上でのべられた、～から(～from)の自由である。しかし、～からの自由にされた者は、さらに～に向って、又は～のために(～for)自由を行使する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について聖書には、自己のために生きるのではなく、他人のために生き、奉仕する人にあたえられた賜物としての自由を意味するのである。「彼がすべての人のために死んだのは、生きている者がもはや自分のためにではなく、自分のために死んでよみがえったかたのために生きるためである」(コリントII5:15)。それ故に自由とは、何処までも自分のためのものではなく、他人のためにもちいられる恩賜である。真理のある処に自由があり、自由のある処にのみ、真の礼拝と奉仕が行なわれるのである。

(つづく)

人権を守る会への回答文

不二綜合出版社より

謹啓 弊社発行の「家」11月号に掲載いたしました「外国の土地が安い」の記事に対する貴会からの抗議文、たしかに拝見いたしました。

正直申しまして、本記事については既に御指摘を受ける以前に、社内において重大問題として取り上げたのですが遺憾ながら、雑誌が市場に出た後でありました。

しかし、本記事を外部のライターに依頼し、且つそれを掲載した、当時の編集責任者の石原幸一郎は自発的に退陣し、社内的には深く自粛しているというのが実状であります。

と申しまして、一たび公けにした記事を取り消すことは不可能なことであり、又ご意見の如く、自らの意図にかかわりなく、その反響に対する責任が弊社に存在することは、当然のことと存じます。

そこで、自粛を更に具体化するために、御忠告に従い同記事の載っている11月号は、今後一切発売しない(在庫分

は資料誌を除き廃棄する)ことと、「家」1月号に、同記事によってご迷惑をおかけした方々に、お詫びの文章を載せることをお約束して、その責めを果たさしていただく所存でございます。

ただ、ここで、敢えて申し上げさせていただきますれば、弊社においては貴会がご懸念されるような、侵略主義的な思想を持つものは誰一人存在せず、また、前編集責任者石原幸一郎氏も、その点においては全く同一であることを信じて疑わないものであります。

ただ、こうした事態がおきたことは、あまりにもそうした意識が低くすぎたため、逆にこの記事の持つ重大さに気付かなかったことが最大の原因であると深く反省する次第であります。

今後は仰せられるように、過去における日本人がアジア諸民族に犯した罪の深さを念

(四頁へ続く)

在日韓国人 合唱団案内

音楽(混声四部合唱)を通じての私達のこの集いは、最初は十人足らずで始めたのですが、今ではもう二十名余のメンバーが毎週はりきって練習に励んでおります。

その間、早や三年余が過ぎましたが、それこそ毎週、雨の日も風の日も負けずに練習を続けて来ました。

これからの団員一同の協力と努力を重ねて、一人でも多く僑胞のみなさまに理解していただける合唱団に育てていくようがんばります。まじめに私達と共に歌ってゆきたい方、関心のある方は、いつでも自由にお越し下さい。

練習日 毎週火曜日六時半～八時半
練習場所 大阪市東区博労町五十二
韓国教育文化センター内
(地下鉄心斎橋下車)

連絡先 僑文社 社内
電話二五一八三九六
電話七六一五〇四六

指導責任者 康成安

韓日交流の歴史をたずねて(一)

田 永 福 牧 師

在日韓国人教会が宣教の責を担うと共に韓民族と日本民族との深い交りと和解を一つの責として担うとしている今日、過去の長い歴史の中での悲しい出来事を今日的な歴史責任として問わねばならないと共に、悠久の人間の歴史の中で民族と民族が運命的な渦中であって、互に助け合い寄り添い合い、深い心と心の交りを持ち合ってきた過去の足跡を辿り、韓国人と日本人とが長い歴史の中で何れ程深い交りに関わり合いを持って来たかを知りたく、過ぐる日、近江兄弟社の伴米蔵兄の案内で岡村松雄牧師の同伴を得て東近江蒲生の地に残された 1,200 余年前の遺跡を尋ねた。鈴鹿山系の麓東近江に湖東三山があって、その中の一寺である百済寺が百済人僧惠聰道欣

観勤の建立になる民族交流の遺産である。推古天皇15年(西紀607)聖徳太子の好意により、百済より日本に移住し近江蒲生に遷居させられた 700 余人の百済の帰化人の宗教的殿堂として百済僧の篤実な信仰活動によって建立されたのが今に残る百済寺である。今から1,200年前の日本を思い、今日の我々の現実を思う時、変りない人間と人間との関係と倫理でありながら忘れて

いるもの、欠けているもの、それは二つの民族が愛と尊敬をもって、真実な交りをする必要があると思う。悠久 1,200年の昔から韓民族と日本民族との人格的な文化的な交流は互に教えられ、互に助け合い、今日の文化の源となってきたことを思い、今日の我々の現実をより良くして行く為の大きな教訓としたい。

(伝道総幹事)

神 学 の 斗 争 -- 3 --

金 承 俊

この霊なる戦い給う神は、「実に焼きつくす火である。(申4・24:9・3:ヘブル12・29)」と記されている。そし

むしろ、あなた方はこのように彼ら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即ち彼らの祭壇をこぼちその石の柱を撃ち砕き、そのアシラ像を切り倒し、その刻んだ像を火で焼かなければならない。(申7・5)」「…その持ち物全部と共に、火で焼かれなければならない。主の契約を破りイスラエルのうちに愚かなことを行ったからである。(ヨシュア記7・15)」「主は悪しき者の上に火と硫黄とを降らせられる。(詩11・5)」「…火をもってあなたの敵を焼き滅して下さい。(イサ26・11)」「…あなた方の悪しき行いの為に私の怒りが火のように発して燃え、これを消す者はない。(エレ4:4)」「…聞き従わず…守らないならば…私は火を…燃やして…焼き滅ぼす。その火は消えることがない。(エレ17・27)」「あなた方は主を求めよ、そして生きよ。さもないと主は火のようにヨセフの家に落さ下られる。(アモ5・6)」「…わが憤り、わが激しい怒りをことごとくその上に注ぐことであって、全地は、妬む私の怒りの火に焼き滅ぼされるからである。(ゼバ3・8) つまり、聖なる、義なる、善なる、かつ真なる神は、罪、汚れ、悪、不誠実、不信仰、偶像、不正等を最も憎み、忌み嫌われるのみでなく、復讐と怒りの念が火のごく燃え給う方であることを啓示している。それ故に、神の似像に創造されている人間はたとえどんなに墮落していよ

うとも、又泥沼にもまれていようとも、本質的には神の善き御性質に憧憬の念をもち、そのすばらしさに胸打たれるのである。それ故に、最も神的人な人とは、その神の善き御性質に似るように日々に努め前進し、自らを鞭打って自制しうる者であると同時に、悪を憎み退け、周囲にそれらを見たり、社会の悪や不正、圧迫が見られる時、神が怒りの火に燃え給うた如く、憤りと激しい怒りを覚える者だということになる。このような激しく燃える炎の心、情熱は旧約聖書を貫いている。予言者も、神の霊が彼に臨んだ時、あの激しく又厳しい情熱をもって、宗教、国家、社会、王等に戦いを挑んで行ったのであって、この霊、火と戦いの霊なくして何の効果も持たさないのである。このような最も厳しい点を厳然と存在しているものとして認めた上で新約聖書を見て行かなければ共倒れに終る。今日、神の御言を伝える牧者達は論理的にも、あらゆる点で素晴らしい事を語ってはいるが、その言葉が行為として現われて来ないというのは、あの厳しさ、焼きつくす火が他人に向かう前に自分に向かっているから、霊が共になく、彼の上に留っていないからである。神を信じ神の御言葉によって生きるという事は、霊が働いて心深く突き入り、心が、あの正義に燃やされることなのだと思う。このことをよく表わしているのがイザヤ書6章である。「聖なるかな、聖なるかな、聖なるかな、萬軍の主、その栄光は全地に満つ。」との讃美の声が神殿に響きわたった時、彼は震え戦き、自分の汚れに、私は滅びるばかりだと叫んでいる。そこで主なる神は燃えている炭火で触れしめ、悪を除き、罪を赦し捨うたあとで、イザヤを遣わそうとされているのを見る。このように神は恐るべき、力ある畏敬の存在者である故に、恐れと戦きとをもって以外には近づき得ぬ方として示している。主なる神は火の中から語り給う。(申4・12,15 36:5・4,24)「…この大いなる火は我々を焼き滅ぼそうとしています。もしこの上なお我々の神、主の声を聞くなれば、我々は死んで了うでしょう。およそ肉なる者のうち誰が火の中から語られる生ける神の声を、我々のように聞いてなお生きている者がありませんか。(申5・25,26)」今日、旧約的面が薄れては

いないか。旧約の義なくして、新約の愛なく、その逆も云える。教会内のパリサイ的の慈しみと新約の愛を知らない。又、安っぽい愛の名の下に、罪も痛みもなしに蓋をし赦して行く人間は深みに至らず、腐敗さすだけであって、真の神を知らない。

관동지방에서 약300만원

9월8일에 1억만원으로 매매계약을 맺은KCC건설위원회는 크나 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委員長김창업장로지휘하에 1억1천만원을 조달하는 제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대관교회가 4월2백5집만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현에매매료를 매매하는 일약4천만원으로 총회내 모든 교회교우가 총력을 모아 헌금하는 활동등인비10월23일부터11월3일까지 전영복목사가 주동이 되어 오운대부委員長 이인하총회총무가 적극협력 하면서 관동지방 각 교회담임목사가 앞장서서 개별방문과 교회집회를 통하여 관동지방 모금활동을 전개 하였다 우리제일대한국교회로서 처음 되는 역사적인 대사업인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찬성협력 하겠다는 관동지방의 모든 교우들의 성의는 진정 이시대를 지고 간다는 기백과 충성의 발로인 것이요 앞으로KCC건설에 밝은 희망과 큰 용기를 얻게 되었다 동경교회는 감사절을 앞두어 심히 어려운 시기인비도 교우들의 지극한 성의는 187만원에 넘은 헌금을 작성 하였다 이번 모금활동에 만나는 이만자정한 헌금총액이 267만5천원에 달 하였고 모든 교회가 아직 전체적으로 헌금작정을 못하였으므로 뒤를이어 각 교회책임자가 건설위원회로 보고 하도록 하였는데 佐世保전도소의 주접사가 작성한 금액이 15만원이라는 보고 가왔다 상상외에 관동지방교우의 열성은 중부 판서 서남 각 지방에 크게 반응 될것이다

印刷는
僑 文 社

716-5046



(三頁より)

頭より離すことなく、弊社の刊行物自体は直接思想的には関係のない住宅雑誌であります、あらゆる機会を通じて、アジアの平和に、世界の平和に貢献するつもりであります。

つきましては、事情以上の如きでございますので、この度は貴会より示された3項目の設問に対する返答は格別のご寛容をもって容赦して下さ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なお、在日韓国人の方々及び、関係各方面の方々には貴殿ならびに貴会より、なにとぞよろしくお取りなしのほど併せてお願い申し上げます。

て、この「火(エシユ)」という語は旧約聖書に366回出ており、それに匹敵する新約聖書の「火(プル)」という語は73回出ている。さて、この「火」が一体どのような意味で、旧約聖書に用いられているかと言えば、罪、汚れたもの、悪、偶像、不信仰、不誠実等に対して語られているのである。例えば「主は…火を…天からソドムとゴモラの上に降らせて…ことごとく滅された。(創19・24)」「その肉がもし汚れたものに触れるならば、それを食べることなく、火で焼き捨てなければならぬ。(レビ7・19)」「主の前から火が出て彼らを焼き滅ぼし、彼らは主の前に死んだ。(レビ10・2)」「